

# 石川啄木の 翻訳詩

## 「끝업는討論한뒤」一考察

— 한국의 「브나로드運動」을 중심으로—

윤재석\*

---

### 目次

---

1. 머리말
  2. 번역상의 문제
  3. 1932년에 관하여
  4. 역자 金相回에 대하여
  5. 맺음말
- 

## 1. 머리말

1932년 동아일보사가 발행하는 잡지 『新東亜』 2월호의 「新東亜詩壇」欄에는, 일본의 대표적 국민시인 중의 한사람인 이시카와 타쿠보쿠의 시 「はてしなき議論の後」가 「끝업는討論한뒤」로 번역되어 게재된다. 역자는 전혀 알려져 있지 않은 金相回이다.

이 시가 번역 소개됨으로써, 타쿠보쿠의 문학 작품이 한국에 처음 알려지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타쿠보쿠의 시 「はてしなき議論の後」는 「암울한 시대에 사회주의를 갈망하며 고뇌하는 급진적 지식인의 제 감정을 읊은 문어체 자유시(暗い時代の中で社会主義を希求して揺れ動く急進的知識人の諸感情を歌う文語自由詩)」<sup>1)</sup>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

\* 한밭대학교교수, 일본근현대문학

1) 『石川啄木の手帳』, 學燈社, 1978. p.168

그런데, 이 시가 1932년 『新東亞』에 번역 게재된 것은 단순한 우연일까? 여기에는 타쿠보쿠의 시가 번역되어 소개될 만한 배경이 있었다고 생각된다. 1931년에 시작된 농촌계몽운동 즉 브나르드 운동이 그것이다.

본고에서는 타쿠보쿠의 번역시 「끝없는討論한뒤」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 고찰해 보고자 한다.

## 2. 번역상의 문제

다음은 타쿠보쿠의 시 「はてしなき議論の後」의 원문이다.

はてしなき議論の後

一九一一・六・一五・TOKYO

われらの且つ読み、且つ議論を闘はすこと、  
しかしてわれらの眼の輝けること、  
五十年前の露西亞の青年に劣らず。  
われらは何を為すべきかを議論す。  
されど、誰一人、握りしめたる拳に卓をたたきて、  
‘VNAROD!’ と叫び出づるものなし。

われらはわれらの求むるものの何なるかを知る、  
また、民衆の求むるものの何なるかを知る、  
しかして、我等の何を為すべきかを知る。  
実に五十年前の露西亞の青年よりも多く知れり。  
されど、誰一人、握りしめたる拳に卓をたたきて、  
‘V NAROD!’ と叫び出づるものなし。

此処にあつまれるものは皆青年なり、  
常に世に新らしきものを作り出だす青年なり。  
われらは老人の早く死に、しかしてわれらの遂に  
勝つべきを知る。  
見よ、われらの眼の輝けるを、またその議論の激しきを。  
されど、誰一人、握りしめたる拳に卓をたたきて、  
‘V NAROD!’ と叫び出づるものなし。

ああ蠟燭はすでに三度も取り代へられ、  
 飲料の茶碗には小さき羽虫の死骸浮び、  
 若き婦人の熱心に变りはなけれど、  
 その眼には、はてしなき議論の後の疲れあり。  
 されど、なほ、誰一人、握りしめたる拳に卓をたたきて、  
 ‘V NAROD!’ と叫び出づるものなし。

이 시는 『호루라기와 휘파람(呼子と口笛)』이라는 제목으로 구성된 8편의 시 중의 제1일편으로, 타쿠보쿠가 폐결핵으로 사망하기 전 해인 1911년에 만들어진 장시이다.

『호루라기와 휘파람(呼子と口笛)』은 第1稿, 第2稿, 第3稿의 8편 또는 11편으로 된 시군을 가르키며, 『呼子と口笛』란 제목하에 8편의 시가 수록된 노트를 第3稿라 한다. 啄木은 이 노트를 시집으로 간행하려 하였던 것 같다.

처음의 6편의 시는 암울한 시대를 살아가는 급진적 사고의 지식인이 사회주의를 열망하며 느끼는 감정을 노래하고 있다.

이어지는 2편의 시는 가난하고 괴로운 생활환경속에서 작은 꿈을 꾸는 서민의 소박한 심정을 5 7음의 정형률로 노래하고 있다.

처음 6편의 시는, 사회주의에 대한 동경을 노래한 문학적 완성도가 높은 시로서 일본근대시사상 최초의 작품이란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이러한 평가에 힘입어 한 때 많은 독자들은 자신의 사회주의 사상에 대한 열정을 투영시켜 이 시의 주제를 사회주의사상을 선동 고취시키는 것으로 이해하기도 하였다.<sup>2)</sup> 타쿠보쿠의 시 「はてしなき議論の後」는 제1고, 제2고에서는 제목으로 쓰였을 만큼 『호루라기와 휘파람(呼子と口笛)』의 대표적인 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sup>3)</sup>

이 시가 金相回에 의해 번역되어 1932년 2월호 『新東亜』에 게재된 것이다. 다음은 그 전문이다.

끝없는討論한뒤

金相回訳

우리가 읽고또한 토론하는것이

2)출저 『日本近代詩歌選集1—이시카와 타쿠보쿠(石川啄木)—』,한밭대학교출판부,1999. p.19  
 3)키마타 사토시(木股知史)는 이 시에 대해 「토론 장면은 크로포토킨의 자전 『한 혁명가의 추억』에서 힌트를 얻고 있다. 혁명기 러시아의 상황과 일본의 현실이 대비되어 『몽상적 혁명』에 대한 기대가 표현되어 있다. (議論の場面は、クロボトキンの自伝『一革命家の思い出』から着想の種子を得ている。革命期ロシアの状況と日本の現実が対比され、『革命の夢想』への希求が表現されている。)」라고 해석하고 있다.(国際啄木学会編『石川啄木事典』, おうふう, 2001, P.38)

그리고 우리의눈이 번득임이  
오십년전 러시아청년에게 질배업다  
우리는 무엇을해야할지를 토론한다  
그러나 누구하나 주먹을쥐여 책상을치며  
「VNAROD!」라 브르짓는이업서라

우리는 우리가구하는것이 무엇임을안다  
또는 민중이구하는것이 무엇임을안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만할것인것을안다  
실로 오십년전 러시아청년보담도만히안다  
그러나 누구하나 주먹을쥐여 책상을치며  
「VNAROD!」라 브르짓는이업서라

이곳에모힌자는 모다젊은무리  
항상 세상에 새로운것을지여내는 젊은무리  
우리는 늙은무리가일즉죽으며 그리고  
우리가 필경늙을것을안다  
보라 우리의눈의 번득임을 또한 그토론의격렬함을  
그러나 누구하나 주먹을쥐여 책상을치며  
「VNAROD!」라 브르짓는이업서라

아아 초스불은벌서 세차레나 갈엇스며  
마시는차스잔에는 적은날벌네가죽어떠잇스며  
젊은부인의 열심스러운 태도에는 변함이업스나  
그의눈에는 끝업는토론후의 과롭이보인다  
그러나 누구하나 주먹을쥐여 책상을치며  
「VNAROD!」라 브르짓는이업서라 4)  
(石川啄木の詩에서)

인용된 시를 보면, 표기나 띄어쓰기 등에 있어서 현대어법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 점은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고려하면 당연한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오히려, 원시의 어휘나 의미, 문맥을 정확히 파악하여 이에 적합한 한국어어를 선택하고 있고, 또한 시적 리듬을 살리고 있는 점 등 훌륭한 번역시라고 생각된다.

4) 인용시의 표기나 띄어쓰기는 원문대로 인용함.

다만, 제3연에서 「われらの遂に勝つべきを知る。」의 「승리할(勝つべき)」이 「늑을」로 잘못 번역되어 있다. 이것은 전체적인 번역 레벨을 생각할 때 이 부분만 오역을 하였다고 생각하기에는 무리가 있고 또한, 문맥을 고려한 의역이라고 생각하기에도 무리가 있기 때문에, 오역이기 보다는 활자조판 시 발생된 오류라고 생각하는 것이 타당할 지도 모르겠다.

이 번역시의 평가를 위해, 현재까지 한국어로 번역되어 있는 김용제, 오영진, 손순옥의 번역물과 비교해 보기로 하겠다. 지면상, 임의로 제1연과 제3연 만을 보기로 한다.

먼저, 김용제역 『혼자 가리라 石川啄木詩歌集』 5)에 게재된 「끝없는 논의 후」를 보면 다음과 같다.

끝없는 논의 후(論議後)

우리들이 독서하고, 또 이론투쟁(理論鬪争)을 하는 태도와  
 그리고 우리들의 눈이 번쩍이는 모습은,  
 五十년 전의 노서아청년에 못지 않다.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이냐를 논의(論議)한다.  
 그러나 누구 하나 부릅썽 주먹으로 책상을 치고  
 『V NAROD』를 외치며 나서는 자는 없다. (제1연)

여기 모인 자는 모두가 청년이다.  
 항상 세상에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내는 청년이다.  
 우리들은 노인이 빨리 죽고, 우리들이 마침내 승리할 것을 안다.  
 보라 우리들의 눈의 광채를, 또 그 논의의 격렬함을.  
 그러나 누구 하나 부릅썽 주먹으로 책상을 치고  
 『V NAROD』를 외치며 나서는 자는 없다. (제3연)

다음은 오영진역 『現代日本名詩選』 6)에 게재된 「끝없는 토론 후」이다.

끝없는 토론 후

우리들이 즐겨 읽고, 즐겨 토론을 벌이는 것,  
 그리고 또한 우리들의 눈 반짝이는 것,  
 오십 년 전의 러시아의 청년에게 못지않다.

5) 新太陽出版社, 1960, p.197

6) 莊文社, 1985.3

우리들은 무엇을 할 것인가를 토론한다.  
하지만 누구하나, 꼬옥 권 주먹으로 책상을 치며,  
‘V NAROD !’하며 외치고 나오는 자 없다. (제1연)

여기에 모인 자들은 모두 청년이다,  
언제나 세상에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내는 청년이다.  
우리들은 노인들이 빨리 죽고, 그리하여 우리들이 드디어 이기는 것을 안다.  
보라, 우리들의 눈의 반짝임을, 또한 그 토론의 격렬함을.  
하지만 누구하나, 꼬옥 권 주먹으로 책상을 치며,  
‘V NAROD !’하며 외치고 나오는 자 없다. (제3연)

마지막으로, 가장 최근의 번역이라 할 수 있는 손순옥역 『이시카와 타쿠보쿠 시선』 7)에 게재된 「끝없는 논쟁 후에」이다.

끝없는 논쟁 후에  
책을 읽어가며 계속하는 우리들의 논쟁  
그래서 더욱 빛나는 우리들의 눈동자  
50년 전의 러시아 청년에게도 지지 않는다.  
우리들은 무엇을 할 것인가 논쟁한다.  
그러나, 누구 하나 주먹을 굳게 쥐고 책상을 치며  
『V NAROD !』를 외치는 사람 없다. (제1연)

여기에 모인 이들은 모두 청년이고,  
늘 세상에 새로운 것을 창출해 내는 청년들이다.  
노인들은 먼저 죽고, 결국 우리네 젊은이가 승리한다는 것을 안다.  
보라, 우리네 눈이 빛남을, 또 그 토론이 격렬함을  
그러나, 누구 하나 주먹을 굳게 쥐고 책상을 치며  
『V NAROD !』를 외치는 사람 없다. (제3연)

이상의 김용제, 오영진, 손순옥의 번역을 보면 이들 연구자의 문학적 역량이 잘 발휘되어 있음을 느낄 수 있다.<sup>8)</sup>

1932년 『新東亞』 2월호의 「新東亞詩壇」欄에 게재된 金相回의 번역시 「끝없는討論한뒤」도 이들 3인의 그것과 비교해 볼 때 손색없는 번역시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7)민음사,1998, p.12

8) 3편의 번역시 모두 각고의 수작이라 생각되어, 이에 대한 분석은 생략하였다.

### 3. 1932년에 관하여

이 번역시가 1932년에 게재된 배경에 대해 생각해 보도록 하겠다.

1931년 東亜日報社는 農村啓蒙運動으로서 「브나로드運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植民地 現實로부터 탈피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이 운동은 추진되었던 것이다.

東亜日報 1931년7월16일자를 보면, 「第1回 學生夏期브나로드運動, 男女學生總動員. 休暇는 奉仕的으로」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많은 지면을 할애하여 대대적인 홍보를 한다. 다음은 그 내용이다. 인용문이 다소 길지만, 오래된 신문 텍스트로서의 가치를 고려하여 원문 그대로 인용한다.

學生의 여름은 쉬는때입니다. 山에 바다에 놀아 健康을 增進하는때입니다. 그리운故郷에 돌아가 오래 侍奉못하였던 父母를모시고 兄弟姊妹들이 團聚하여 家庭의 情을 亨策할때입니다.

그러나 學生여러분. 여러분은 夏休의 一部 -- 가령 一週日間 을 내어 故郷의 同胞들 為하여 貢獻하심을 잊으려하지아니합니까. 가령

1. 글을모르는이에게 글을주고
2. 衛生知識이 없는이에게 衛生知識을주고

이러한일을 아니하시렵니까. 당신의 一週日努力이면 당신 故里의 文盲이 消滅될것이오 당신 一週日 努力이면 당신의 故里에 衛生思想이 普及될것입니다.

學生 여러분 이것이 적은일이 아닙니다. 文字의 普及과 民族保健運動의 徹底 -- 이것은 朝鮮의 ○○大事인同時에 學生여러분의 貢獻을 熱望하는바입니다. 母論 이두가지일밖에도 가령

1. 音樂演劇等娛樂
2. 協同組合等の 実伝訓練

其他 여러가지로 學生 브나로드運動이 할일이잇을것입니다 마는 今年에는 第1回로 우에말스한

1. 文字와数字 普及
2. 衛生講演

의 두가지를 學生여러분께 請하기로하였습시다.

그리고 ○○學生 記者隊를 募集하거니와 이것은 前例가없는 最初로하는 事業이오 또 學生여러분께는 興味百퍼센트일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學生記者여러분의 通察力과 叙述力을 養成하는데 有助될것은 勿論이어나와 또 一般讀者로서 보다라도 純真하고 清新한 學生여러분의 心琴에 울러나온 詩,文,記 등이 獨特清涼劑가 될것을 確信하는바입니다.

끝으로 「브나로드」라는말에 처하여 一言하려합니다. 브나로드라는것은 아라

사말로 「民衆에게로」라는 말인데 十九世紀에 아라사의 知識階級들이 農民 労働者에게로 들어가서 몸소 體驗도하고 指導도하던 運動을 指摘한것인데 우리는 그중에서 다만 「民衆에게로」라는뜻을 取해온것입니다.

「學生夏期브나로드」-- 부르기도 좋고 學生답기도한말인가합니다. 男女學生 여러분은 「學生夏期브나로드」로오라.

「學生夏期브나로드運動, 男女學生總動員. 休暇는 奉仕的으로」라는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여름 방학을 이용하여 학생들이 「글을모르는이에게 글」을 가르치고, 「衛生知識이 없는이에게 衛生知識」을 가르치는 것을 학생브나로드 운동의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학생 하계브나로드 운동의 핵심은 문맹퇴치와 위생적인 생활 지식을 보급에 있었던 것이다.

또한, 문자 보급과 위생 지식 보급 운동을 왜 브나로드 운동이라 이름지었는지에 대해, 「브나로드」라는 것은 러시아어로 「民衆에게로」라는 말인데 「十九世紀에 아라사의 知識階級들이 農民労働者에게로 들어가서 몸소 體驗도하고 指導도하던 運動」임을 밝히고 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우리는 그중에서 다만 「民衆에게로」라는뜻을 取해온것입니다」라고 밝히고 있는 것처럼 동아일보사의 이 하계브나로드운동은 러시아의 그것과는 관계가 없다는 점이다. 이것은, 『東亞日報社史』<sup>9)</sup>에도 「本社에서 벌인 『브나로드運動』은 19世紀 러시아에서 展開된 『브나로드運動』과는 아무런 關連이 없었다. 다만, 브나로드 즉, 『民衆속으로』라는 語義만을 따서 2千万 人口가운데 8割에 가까운 1,600萬의 文盲者를 対象으로 文盲打破와 國文普及을 主軸으로 하고, 이와 아울러 衛生知識을 널리 普及시키는데 目的을 둔 一大民衆運動이었다」와 같이 밝혀져 있다.

브나로드 운동에 대한 이러한 홍보 글은 같은 것이 7월18일,19일에도 게재된 다. 이와 같이 많은 지면을 집중적으로 할애하여 홍보를 하고 있는 것은 동아일보의 브나로드운동에 대한 인식이 어떠한 것이었는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대대적인 홍보에 대한 결과 보도도 이어진다.

동아일보 1931년7월23일자에는, 「學生브나로드運動 空前의大反響惹起 申請書 接受에도晝夜兼行--民衆과가티살고民衆과가티알자! 奉仕의大精神流露」와 같이 이 운동이 많은 학생들에게 관심이 있음을 알리고 있다. 특히, 「學生以外의 篤志도 參加는 勿論可能- 別動隊로 活動無妨」와 같이 이 운동의 대상은

9) 東亞日報社編 『東亞日報社史』,1975. p.336.

학생이지만, 관심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참여하여 활동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그리고 7월24일자 신문에는 수일간을 통하여 홍보하던 상기의 「第1回 学生 夏期브나로드運動, 男女学生總動員.休暇는 奉仕的으로」내용에 추가하여 「參加申請은 二十五日限」으로 마감일이 임박했음을 알리고 있다.

7월25일 신문에는 이 학생브나로드운동의 주요 목적인 문자보급 운동의 첫시작으로 「第一回 朝鮮語講習會」가 7,8월에 전국 각지에서 실시될 것임을 알리며, 그 의의와 목적에 대해 「한글을 普及하는 것이 重要的 일인것은 말할것도 없다. 本社에서는 韓글의 普及을 爲하여 夏期学生브나로드運動을 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朝鮮안에서 文盲을 滅絶해야할 것이다.」와 같이 밝히고 있다. 또한, 東亞日報 1931년7월28일자 社說 「学生브나로드와 韓글講習」에서는 「民衆에게 유익하고 学生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이면 점차로 다 할 것」이다 라며 그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이 하계 학생브나로드운동은 당시 동아일보 지상에서 가장 많은 지면을 차지하며 가장 큰 주목을 받는 이슈였던 것이다.

이렇게 하계 방학기간인 7,8월에 걸쳐 문자보급과 위생적인 생활지식을 알리며 농촌계몽에 이바지한 「第一回 学生브나로드 運動」의 실시 상황이 중앙일보의 지면을 차지한다. 예를 들면, 9월1, 3일자 기사이다.

「啓蒙隊消息—朝鮮文、日用計數法講習」

○○郡 宿城里 隊員徐丙昌

修了者 男子三十八人 女子十三人 合五十一人 學習時間 男子三十予時間 女子二十予時間 男子最高二十三才最低九才 女子最高十五才 最低七才 成績은 八割이 良好하여 韓글은 充分 書讀讀합니다. 그러나 만은 사람이 農民이라 夜間授業者여가 八割입니다. 그런데 今 韓글 學習에 熱誠이 넘친다 하여 日間夜學計劃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坡州郡 ○峴里 隊員 趙相龍 修了者數二十七名 男二十 女七 學習時間總數 男女共七十時間 年齡最高十五才 最低七才 배우고시픈사람들은 모여라하니 첫날부터성심껏배우러달려들어 優良한 好結果를 얻었나이다 終了日에는 그들과 約束한 바와가티 남보다더말아는사람은웁웃붉은한 어여쁜 繪葉書를 상주엇더니 매우깃거워하엿습니다.<sup>10)</sup>

10) 신문의 원본 보존 상태가 불량하여 활자 판독이 불가능한 곳이 있다. 이러한 부분은 ○○으로 표기하였다.

「啓蒙隊消息」소식이란 제목 하에, 대원의 이름, 강습 지역, 학습자수, 남녀 성별, 나이, 성적 등이 구체적으로 밝혀져 있다. 흥미로운 점은 남녀 성별에 따라 학습시간에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남녀 평등이 요원한 시대임을 알 수 있는 대목이라 생각된다.

특히, 강습에 참가한 대원의 의지와 보람 등이 소개되어 있는 점도 이 학생 브나로드 운동이 얼마나 학생들의 관심의 대상이 되었는지를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라고 생각된다.

그리고 10월 들어서, 하계 학생 브나로드운동의 총결산에 대한 내용이 지면을 차지한다.

1931년10월21일자 기사를 보면, 「今年夏期利用第一回 브나로드運動總決算 講習學生總數九千五百予名 學生諸君의 誠意의 結晶」이라는 제목 하에, 참가한 총대원수 「四二三」명, 강습지역 「一四二處」, 강습자수 「男子四,八二二人、女子三,四七二人」, 강습 총 일수 「二,二八九日」, 강습 경비는 「講習者」본인들이 부담하거나 또는 그 지역의 「洞里有志」들이 부담하고 있음을 알리고 있다. 또한, 전국의 강습지, 강습대원, 강습일자, 남녀별 강습자수를 일일이 구체적으로 명기하고 있다.

이후 동아일보는 이러한 게재 방법으로 이 운동에 참가한 학생들의 명단, 활동 상황, 운동의 성과, 운동의 의의 등을 집중적으로 게재하며 적극적인 홍보를 한다. 이러한 내용은 당시의 많은 학생들에게 많은 관심을 불러 일으켰으리라 생각된다.

이렇게 문자와 위생지식 보급을 목적으로 펼쳐진 학생 하계브나로드 운동은 정착되어 가면서, 1932년부터는 文字普及 즉 「文盲打破」에 더욱 주력하게 되었다. 이 「文盲打破」運動에 전국각지에서 참가한 학생들(主に中學生・專門學生)의 수가 「一九三一年 約四三〇名」에서 「一九三二年 約二七〇〇名」(東亜日報、1932.10.5일자)으로 그 수가 대폭 늘어난 것은, 이 운동이 시작되어 1년 후 학생들에게 많은 관심의 대상이 되었음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바꾸어 말하면, 브나로드운동의 의미가 충분히 학생들에게 전해졌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타쿠보쿠가 브나로드를 외친 「はてしなき議論の後」의 번역시 「끝없는討論한 뒤」가 1932년에 신동아 시단에 등장한 것은 이러한 배경과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된다.

## 4. 訳者 金相回에 대하여

현재 金相回에 대해서는 전혀 알려져 있지 않다. 이케다 이사오(池田功)<sup>11)</sup>가 金相回에 대해 「はてしなき議論の後」을 번역하였으니 당연히 「プロレタリア系の影響を受けたい」라는 추측을 할 정도이다.

필자도 여러모로 조사를 해 보았으나 김상회에 대해서는 전혀 알 길이 없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추론은 가능할 것 같다.

전술한 것처럼 1932년은 브나로드운동이 가장 활발한 시기로서, 신문자료에서 보았던 것처럼, 당시의 학생들은 보통 이 운동의 목적과 의미에 대해 알고 있었을 것이다. 역자 金相回는 이러한 학생들 중의 한명이 아니었을까?

즉, 「브나로드運動」이 성행한 시기에 역자인 金相回는 啄木の詩 「はてしなき議論の後」을 생각하고, 또는 발견하여, 이 시라면 충분히 브나로드운동을 고무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 번역하여 『新東亜』에 투고한 것은 아닐까?

역자 金相回는 『新東亜』의 독자이며, 특히 「新東亜詩壇」欄을 잘 알고 있는 즉, 시를 좋아하는 독자임에는 틀림없는 것 같다. 또한 번역시 마지막에 「石川啄木の詩에서」라는 문구에서도 알 수 있듯이 타쿠보쿠의 다른 시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을 것이다. 예를 들면 「はてしなき議論の後」가 실려 있는 시집 『호루라기와 휘파람(呼子と口笛)』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보통, 시 「はてしなき議論の後」는 『호루라기와 휘파람』라는 제목 하에 8편의 시가 함께 게재되기 때문이다. 전술한 『호루라기와 휘파람』은 「はてしなき議論の後」 「ココアのひと匙」 「激論」 「書齋の午後」 「墓碑銘」 「古びたる靴をあけて」 「家」 「飛行機」와 같이 총8편의 시로 구성되어 있는 시 노트이다.

## 5. 맺음말

1931년 한국에서는 農村啓蒙을 위한 브나로드운동이 성행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 운동은 주요 언론사에 의해 시작되었지만, 그 성격이나 의미는 「아래에서 시작된 자발적 민중운동이며(下からの自発的民衆運動であり)」 「민족의 항일운동(民族の抗日運動)」<sup>12)</sup>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배경 하에 金相回

11) 池田功 『若き日本文学研究者の韓国』, 武蔵野書房, 1992. p.227

12) 中山和子 「植民地末期の朝鮮文壇と日本語文学 (一)」 『文芸研究 第六九号』, 明治大学文学部 「紀要」, 一九九三.

의 번역시 「끝없는討論한뒤」는 탄생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 번역시는, 행동에 옮기지 못하는 일본의 젊은이를 한탄하며 브나로드를 외치는 타쿠보쿠의 시를 상기시킴으로서, 우리 한국의 젊은이들은 적극적으로 브나로드운동에 참가하여 민중의 역량을 발휘하자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평가해도 좋을 것이다.

### 【参考文献】

- 呉英珍역 『現代日本名詩選』, 莊文社, 1985.  
孫順玉訳 『이시카와 타쿠보쿠 시선』, 민음사, 1998, p.12  
金龍濟訳 『혼자 가리라 石川啄木詩歌集』, 新太陽出版社, 1960, p.197  
国際啄木学会編 『石川啄木事典』, おうふう, 2001.  
출저 『日本近代詩歌選集 1 —이시카와 타쿠보쿠—』, 한밭대학교출판부, 1999, p.19  
国文学編集部 『石川啄木の手帳』, 学灯社, 1978, p.168  
東亜日報社編 『東亜日報社史』, 1975, p.336  
池田功 『若き日本文学研究者の韓国』, 武蔵野書房, 1992, p.227  
東亜日報社編 『新東亜』 1932년2월호  
中山和子 「植民地末期の朝鮮文壇と日本語文学(一)」 『文芸研究 第六九号』, 明治大学文学部紀要, 1993.

## 要 旨

1931年、韓国では農村啓蒙のためのブナロード運動が起きた。その運動の性格や意味は「下からの自発的民衆運動であり」「民族の抗日運動」であったと言える。こういった背景のもとで、金相回の翻訳詩「끝업는討論한뒤」は生まれたものであると思われる。

この翻訳詩は、行動に足りない日本の若者を嘆息しながらブナロードを叫ぶ啄木の詩を想起させることによって、韓国の若者が積極的にブナロード運動に参加して民衆の力量を発揮することを訴える意味を持っていたと評価してもいいと思われる。

キーワード：「農村啓蒙」「民衆運動」「ブナロード運動」「啄木の翻訳詩」

투 고 : 2007. 8. 31  
1차 심사 : 2007. 9. 8  
2차 심사 : 2007. 9. 29

住 所 : (305-719) 대전시 유성구 덕명동 산16-1 한밭대학교 일본어과  
電 話 : 011-9038-1354  
e-mail : jsyun@hanbat.ac.kr